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계묘년 새 해가 밝았다. 영천시의 올해 사자성어는 ‘적토성산(積土成山)’으로 정했다.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는 의미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이전’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본격적으로는 3년만에 열린 올해 영천시 해맞이 행사는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전망타워와 고경면 삼성산 및 대창면 채약산 일원에서 이날 1000여명의 시민들이 분산 참석해 새해 소망을 빌었다. 이만희 의원과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도 이날 영천시 공식 해맞이 행사장인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에 둘러 시민들과 덕담을 주고 받은 후 곧바로 고경면 삼성산 해맞이 행사장을 찾는 등 새해 첫날부터 시민들과의 소통행보에 바쁜 발품을 팔았다. 이 의원과 하 의장은 이날 시민들에게 “2023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사진 장지수 기자>

이철우 도지사 “2023년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 주도 원년” 천명

경북도 '화공 굿모닝' 제201회 새해 첫 특강 대한민국 지방시대 열어나가는 굳건한 초석



<3일 새벽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공부 모임인 '화공 굿모닝 특강' 후 기념 촬영>



<왼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월尹 대통령(당선인 시절)에 전달한 화공 강연집, (오른쪽 사진)=2021년 8월 이철우 지사가 제127회 '화공 굿모닝 특강' 후 새내기 공무원에 전달하는 모습, 제공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새해 첫 일성으로 “2023년을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3일 '매주 화요일에는 공부하자'(이하 화공)는 의미의 공무원들 공부모임인 올해 첫 '화공 굿모닝 특강'을 실시한 후 이 같은 경북의 새해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첫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화공'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새벽 공부모임에 직접 참석해 공무원들과 함께 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 왔다. 올해 첫 '화공 굿모닝 특강'은 이날 역사적 201회 째를 맞았다.

특히 이 지사는 이 같은 화공 특강집을 윤석열 대통령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지금의 김대기 비서실장(당시 단국대 교수 신봉 특강 강사)과 함께 100회까지의 화공 특강집

을 직접 전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의 시급성을 일찌감치 전달한 것.

또 윤 대통령(당선인)도 당시 '화공'이 무엇이냐며 관심을 가졌다. 이 지사는 “화요일에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공부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이날 책자를 선물했다.

이 지사가 이 같은 화공에 올인한 것은 지방시대의 절박함 때문이다. 자신의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인구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북의 현실을 보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특강을 중단해야 할 위기도 있었지만 ‘전쟁이 나도 공부하는 했다’며 “이철우 도지사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방 시대 의지가 담겨있어 이 같은 ‘2023년을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원년’이라는 화두가 탄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화공(특강)은 국내 저명 전문 강

사들로 구성돼 4차 산업혁명,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한 미래 지방시대 준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메타버스' 기술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등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굳건한 초석을 놓았다.

이철우 지사는 “200회까지의 화공이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공부 모임이었다면, 201회부터는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과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며 이 같은 경북 지방시대 원년을 재천명해 정·관계 주목을 받고 있다. 장지수 기자

<용어 Tip>

구랍 = 지난해의 마지막 달, 즉 12월을 의미합니다. 예) 구랍 26일=2022년 12월 26일

영천시 인사

1.1일자, 승진(35명) 및 부서장 전보(17명) 총 287명 대규모

◇ 승진임용(4급2, 5급7)

▷ 권혁구(행정4급) 경제환경국장
 ▷ 이정희(기술4급)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무현(행정5급) 청렴감사실장
 ▷ 이의웅(행정5급) 세정과장
 ▷ 이어경(행정5급) 평생학습관장
 ▷ 정수환(행정5급) 공원관리사업소장

▷ 조수정(사회복지5급) 복지정책과장
 ▷ 정승채(농축산5급) 축산과장
 ▷ 신진호(토목5급) 안전재난하천과장

◇ 부서장전보(17명)

▷ 이한진 정책기획실장 ▷ 정기열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 이근택 새마을체육과장 ▷ 김성현 자원순환과장 ▷ 김영주 지역활력과장 ▷ 정유찬 보건위생과장 ▷ 이종홍 농업정책과장 ▷ 양광환 체육시설사업과

장 ▷ 최상국 금호읍장 ▷ 손환주 청통면장 ▷ 손태국 신녕면장 ▷ 박상식 화남면장 ▷ 김동한 자양면장 ▷ 최재열 고경면장 ▷ 조명화 서부동장 ▷ 서성호(행정6급) 남부동장직무대리

◇ 전출(10명)

▷ 김정환(6급) 영천시의회 ▷ 하재천(6급) 영천시의회 ▷ 유승민(8급) 영천시의회 ▷ 황혜진(9급) 영천시의회 ▷ 김세희(7급) 대구광역시 북

구 ▷ 권지희(7급) 울릉군 ▷ 권남경(8급) 대구광역시 서구 ▷ 김영희(8급)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 한동규(8급) 평택시 ▷ 박시은(8급) 청도군

◇ 파견복귀(8명)

▷ 정옥구(5급) 홍보전산실장 ▷ 김동욱(6급) 기업유치과 원스톱허가담당 ▷ 노현정(6급)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 이재우(6급) 중앙동 ▷ 강동우(7급) 일자리노사과 ▷ 박지호(7급)

문화예술과 ▷ 정우용(7급) 환경사업소 ▷ 이동현(7급) 관광진흥과

◇ 파견(8명)

▷ 양만열(5급) 영천시의회 ▷ 허희정(5급) 영천시의회 ▷ 이화정(8급) 영천시의회 ▷ 김상협(8급) 영천시의회 ▷ 은동호(9급) 영천시의회 ▷ 최병익(9급) 영천시의회 ▷ 진동환(6급)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박준서(7급) 영천시시설공단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예산안 수정발의 두고 고성-막말-난장판 논란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같은 당 재선들의 반란...상임위 의결 예결위서 뒤집어
의회 규칙 절차-과정 두고 "적법"↔ "위반" '갑론을박'
국민의힘 재선 3명, 예산확보 집행부 편들기 이유 있나?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국민의힘 탈당 시사 발언 왜?
일부 의원들의 막말 및 부적절한 발언, 윤리위 주목

영천시의회가 집행부(영천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일부 재선(3명) 의원들의 집행부 편들기(예산승인)와 초선들의 반대(예산삭감)로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본회의장이 난장판으로 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부 내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의회 상임위 삭감안이 예결위서 되살아나고 또 예결위 최종 안이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의결)로 또 다시 뒤집어(삭감)졌다.

더군다나 이같은 양상은 같은 당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재선의원들이 의장이 포함된 초선의원(6명+재선 1명)들과 힘겨루기 모양새로 비화해 향후 의정활동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영천시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10명(초선6, 재선4) 무소속 2명이다.

특히 집행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와 맞물려 본회의장과 상임위에서 고성과 부적절한 용어는 물론 막말까지 나오면서 윤리위 가동 움직임도 감지되는 등 파문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 사전 유출

문제의 발단은 구랍 15일 각 상임위 삭감조서 초안이 예결위 문턱을 넘기도 전에 집행부에 건너가면서다.(본회의는 16일)

김선태 의원은 16일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 삭감 조서가 정리되기도 전에 집행부에 유출돼 집행부 각 부서장들이 밤 늦게까지 예산의 사용주체인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삭감에 따른)질타를 받는데서 시작됐다"며 본회의의 논쟁 원인을 짚었다. 이처럼 상임위 의결이 예결위서 뒤집어지자 이에 반발한 각 상임위 예산 삭감 주체 의원들은 본회의장 수정발의(표결)로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초선(삭감)과 재선(승인)들의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본회의장이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것.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도 집행부 예산안 의회 삭감 규모는 당초 총무위 47건, 산업건설위 30건, 운영위 2건 등 모두 79건이다. 금액 규모로는 약 67억 원.

그러나 예결위서 18건이 되살아났고, 다시 본회의 수정발의로 당초 (상임위)삭감 규모 79건보다 5건이 더 많은 총 84건이 최종 본회의에서 재차 뒤집어(삭감)졌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편들기에 3명의 재선 의원들이 무소속 2명의 의원들과 가세해 삭감 주체인 초선(의장 포함 7명)과의 대결양상으로 비춰진 것. 이날 본회의 수정안은

이들 재선의원 3명과 무소속 2명 등 5명이 반대하고 초선을 포함한 7명이 찬성해 최종 7대5의 대결로 집행부 편들기에 나선 재선(3명)의 확연한 패배로 끝났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간 불소통에 따른 내부 갈등으로 비유되지만 이번 예산안 논란은 본회의장 (표)결과만 보더라도 같은 당 재선 3명의 집행부 편들기는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본회의장 막말, "개무시 똥무시"

특히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고, 사실이 아

서 조율 할라꼬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뭐 답답합니까? 저는요, 꽃놀이패 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김용문의 원하고)는 무소속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우리는 좋지, 그런데 영천시의회가 지금 개판이 되뿌렸어요. 완전히 개판이 되어뿌렸는데 저는요 이런 회의를 개똥발에는 있기 싫으니깐 퇴장 하겠습니다"며 서류를 챙겨 회의장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고 퇴장했다.

특히 하기태 의장이 "이영우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이 의원은 쥐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던지면서 "자제라니, 자제요? 의장님 이거 다 짜고 하지마쇼, 이거 뭐 국힘당 저거끼리 짜고합니까? 아이구 참 내가 이런소리까지 할라카이"라고 말하면서도 "영천시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합니까? 참~기가찬다 기가 차, 아이고" 등 의장을 폄하하는 발언도 가감없이

습니까 우리를 개무시하면서, 그따위로 하지마세요"라며 격한 막말로 김 의원을 맹 비난했다

우애자 의원은 또 앞서 상임위(정회)에서도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원장(권기환)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본회의장 집행부 편들기 무소속 이영우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재선 우애자 의원을 비롯해 이갑균·이영기 의원의 가세도 주목받고 있다.

이갑균 의원은 "상임위원회 결정난 사안을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바로 들고 오는 이런 관례를 남긴 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존재 자체가 오늘로써 무너진것 같다."며 수정안 발의에 항의하고 하 의장에게 우려를 나타냈지만 본지 취재결과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상정된 안건은 없으며 이 의원의 발언 실수로 확인됐다.

게 논의하지는 취지에서 충분히 삭감이유를 설명하고 토론도 거친다."고 말하고 (김상호)위원장의 수정안 한건한건에 대해서 "구체적 사유 설명을 달라"며 요구했다.

또 그는 "총무위는 산업건설위를, 산업건설위는 총무위 안건을 잘모른다. 12명 의원 모두 불러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번 수정안 발의에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앞서 총무위 삭감 의결이 끝난 직후 김상호 위원장은 "각 상임위(삭감)가 끝나고 예결위 직전 총무위와 상임위 의원들이 모두 모여 교차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다시 예산안 조율 및 토론을 갖자"는 제의를 본지 취재에 이갑균 의원은 "예결위 고유 권한으로 중복된다"는 의미로 거절한 바 있다.

이처럼 같은 국민의힘 재선의원 3명이 이영우 무소속 의원의 발언을 거들면서 이번 영천시의회 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은 사실상 각 상임위 삭감안에 대해 예결위 소속 재선의원(이갑균, 이영기, 우애자)들의 주축으로 노골적 집행부 예산확보 편들기로 비춰졌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장 수정발의안 처리는 반드시 질문과 답변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의회규칙 절차와 과정을 위반한 것이다"며 지적인 반면 또 "이번 본회의장 표결 결과(7대5)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일부 재선 의원들이 무소속 2명과 함께 집행부 예산확보 편들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 의결이며 의원 개개인이 투표와 의장의 결정안 선포로 위반 사항이 없으며 더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 움직임 주목

한편 구랍 16일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 및 언행과 관련해 의회 윤리위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 욕설과 부적절한 발언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또 한 의원의 경우 취재기자를 향해 "의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고함도 질렀다. 그는 "무슨 자격으로 기자의 의회 출입을 막느냐"는 질문에 "왜? 내가 의원이다 와?"며 재차 고함을 지르고 "웃기네"라는 본지 항의에는 "내 웃긴다 왜? 몰랐나? 와?"라며 반말로 수차례 고함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권기환 윤리위원장은 이번 상임위와 본회의장 논란 사태와 관련해 "의회 내·외에서 윤리위를 거론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의원들의 요구가 있고, 윤리위원의 대상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윤리위원회 개최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닌 발언까지 등장해 예산 승인을 위한 재선들의 집행부 편들기와 예산 삭감을 주도한 초선, 두 부류의 각축장으로 얼룩졌다.

가장 먼저 이영우 (무소속)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예결위 최종안에 대한 본회의장 수정발의와 관련해 "예결위원이면서 (김상호)총무위원장이 직접 수정발의를 하는것은 전체 의원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이다"로 시작해 "보복성. 위원장이 할것 안 할것도 모른다, 오질 없는 것, 꼭두각시 합니까? 의원 자격 무너뜨리는 것, 자꾸 끼어들지 마쇼, 듣고만 있으소, 위원장직 내놓을 용의 있나, 개무시·똥무시, 똥쓸똥수보다 더 더러운 똥수"등 막말을 쏟아냈다. 급기야 펜을 던지면서 "이런 개똥발 같은 회의장에 있기 싫다"며 강하게 (특)마이크를 끄고 서류로 책상을 내리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또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도 우후죽순으로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정안 발의는 (국민의힘)자기들끼리 속삭속닥 해가지고 이거 뭐 썩떡 먹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소속이 나서

뻔했다.

이 와중에 이 의원은 특히 집행부 편들기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집행부가)1년쯤 지났다면 몰라도 이제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집행부 발목잡기식 삭감을 시키뿌면 일하지 말고 놀아뿌라 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집행부 편을 들었다.

◆재선들의 무소속 집행부 편들기 옹호 발언... 이갑균·우애자·이영기 의원

또 재선인 우애자 의원도 막말 발언으로 가세하며 본회의 수정발의에 항의했다. 우 의원은 김상호 의원을 향해 "(김상호)자기도 예결위원인데 (수정안은)같은 동료의원 김종욱 예결위원장을 완전 개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위원회 필요없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 열릴 때 참석하지 않겠다"며 격한 발언으로 수정안 발의에 불만을 나타냈다.

우 의원은 이어 본회의 발의 수정안에 대한 예결위 직전 11건의 세부 자료를 요청하고 "진짜로 이거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천시의회입니다. 존중하는기 이따위로 합니까? 재선의원을 존중했

또 이 의원은 "범과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의장님이 고민해 봤느냐, 영천시의회가 이같은 행동으로 향후 의회 발전에 문제점으로 남는다"는 의미로 "영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무시하고 예결위원회 무시하고 이런 안을 바로 본회의장까지 들고와서 특히 본예산(의결)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냐"며 이같은 수정안 본회의 발의가 의회 개원 후 처음임을 강조하며 무소속 이영우 의원의 집행부 편들기 발언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었다. 김선태 의원은 의회사무국장을 통해 "앞서 이같은 사례의 본회의장 수정발의로 의결된 예산안 삭감 전례가 두 세차례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영기 의원 상임위 교차 논의 제안, 앞서 김상호 위원장도. 그러나 이갑균 의원이 거절

또 재선 이영기 의원도 이영우 의원의 집행부 편들기 발언을 거들기는 마찬가지. 이 의원은 "수정발의안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협의체다. 다시 심도있

군림하는 영천시 이·통장연합회, 시의원 이·통장회의 출입금지 명령

연합회, "이·통장 피복비 삭감 시민여론 무시한 것" 이유 일각 이장들, "이·통장 피복비 지급 시민여론 아냐!" 반론 "연합회가 법원도 아닌데 시의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나"

전국에서 각 지자체 이장들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북 영천시에서도 이장연합회가 시의원들을 통제하는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천시이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구립 23일 수신자를 영천시의회 시의원들로 하여 "12월 21일 이후 이·통장회의 및 읍면동 총회, 이·통장들이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시의원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천시의회에 전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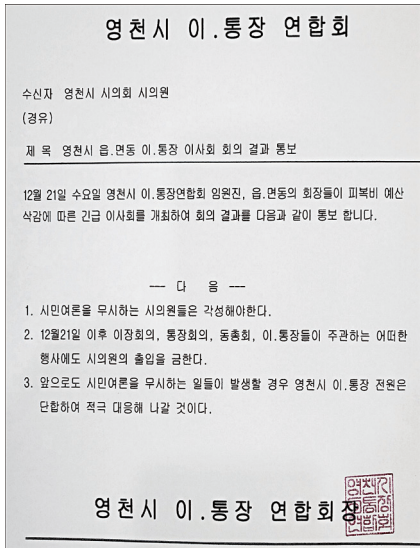
이 공문은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시의원들은 각성하라"면서 "앞으로 이·통장 전원이 단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는 시의원들을 향한 경고성 문구도 적시됐다.

이 같은 공문의 배경은 집행부(영천시)가 편성한 내년도 이장들의 피복비(5000만 원)를 영천시의회가 삭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연합회는 이번 피복비 삭감과 관련해 구립 2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금지령을 결의해 문자로 지역 전체 이·통장들에게 '마을총회'까지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의 이장들과 연합회 일부 회원(이장협의회회장)들은 이번 연합회의 의원 출입금지 결정을 두고 "한마디로 얻을 것 없는 무모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또 금호의 한 기관장 A씨(63)는 "요즘 일부 이장들이 너무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읍·면·동장들이 자신



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장에게 읍면동장을 바꿔달라"는 등 읍·면·동장들 위에 군림한다"며 '갑질'의 도가 넘는다 지적이다.

또 다른 이장협의회회장 B씨는 "연합회가 월권을 한 겁니다. 연합회가 무슨 권리로 이·통장회의와 읍·면·동 총회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연합회가 법원입니까? 영천

시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들 일부 이·통장들은 "우리는 피복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연합회 몇몇 임원들이 영천시에 요구했는지 몰라도 이번 사태로 피복비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피복비 삭감과 관련해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장협의회의장은 "우리 이장들이 행정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실제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우리가 다한다"면서 "피복비는 필요없고 그보다 오히려 수당을 더 인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 이·통장 연합회는 이·통장과는 달리 민간 사단체다.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는 이·통장 및 반장에 한하여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연합회는 올해 초 회장

취임식을 영천시 본청 대회의실을 이용한 바 있다. 영천시가 이 같은 조례 규칙을 사전에 알고서도 사단체 회장 취임식장으로 본청 대회의실 사용을 허락해 연합회장의 요구에 굴종한 모습을 보여 왔다. 연합회의 권력화에 비유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피복비 삭감과 관련해 현재 지역 16개 읍·면·동, 415명의 이·통장에 대한 2022년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단체 상해보험 5900만원, 자녀장학금(대학 50만원 10명, 고등학교 120만원 10명) 1700만원, 산업시찰(32만원 16개 읍면동 10명) 7000만원, 건강검진비(1인당 30만원), 각종 회의실비 62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 등 모두 2억3200만원이다.

여기에 이장 1인당 수당 30만원과 회의 참석 수당 2만원(월 2회) 명절 상여금 30만원(연2회) 등은 읍면동에서 자체 편성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지수 기자

[단독] 영천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 말썽... 사업 주체 간 사법 난타전

사업부지 선정에 이권 개입 정황, 담당 공무원이 앞장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공무원과 빅딜로 취하한 의혹 사업 주도권 쟁탈 위해 횡령혐의 고소, 결국 혐의없어

영천시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사업주도권 쟁탈로 구성원들끼리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주무관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또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직권남용혐의)하는 등 공무원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7억 원 규모로 시작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모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지난 2020년 완공해 영천시가 주민들에게 (운영) 넘겼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 2월부터 사업 시설(임고문화복지센터)을 운영 관리할 사무장을 공모하여 합격자 K씨를 임명해 운영 준비를 맡게 된 것.

K씨는 2021.2.16일 농업회사법

인 (주)포은골(대표 이 모씨)을 설립해 같은 해 4.24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천시와 임고문화복지센터(임고면 양항1리)를 위·수탁계약 체결로 본격 (관리)운영에 들어간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주도권 논란이 일면서 일부 임원들이 올 4월 K씨를 법인운영자금 등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운영진이 교체돼 갈등이 접착됐다.

경찰은 구립 12일 K씨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번에는 K씨의 명예회복을 위한 반전 역공격이 개시된 것.

K씨에 따르면 "사업체가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8개월간 무보수로 일하면서 오히려 사업 초기 (일부) 자신의 사비를 투입해 선사용 후



<경북 영천시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핵심 수익 시설인 '임고문화복지센터' 29일 전경. 이 시설에 약27억 원이 투입됐다. (사진=장지수 기자)>

후증빙 방식으로 세무기장을 맡겨 횡령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일부 임원들이 자신의 사무국장 자리를 찬탈할 요량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K씨는 같은 달 25일 자신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실질적 포은골 대표를 무고혐의와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지역 면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각각 역 고소하면서 사법 난타전으로 번졌다.

발단은 앞서 사업의 핵심 요소인 임고문화복지센터 위치 선정에 있다. 면 중심지기점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사업매뉴얼 규정을 어겨 약 1.7km 밖에 설치해 K씨의 지적을 받으면서다.

"일부 당시 (현)사업주체 대표와 사무장이 개입해 현 위치를 선정했고, 또 당시 사업을 지휘했던 담당 공무원(현재 명퇴)이 결탁해 이를 승인하는 등 이권에 개입된 사업부지 선정을 했다"며 K씨가 2019년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당시 부지 매입가도 2배 이상 부풀려진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K씨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당시 승진을 앞둔 담당 공무원과 빅딜을 한 정황이 역력했다. K씨의 민원 취하 두세 달 후 담당은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한편,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은 통상 농업 기반공사가 수탁 받아 사업완공 후

영천시에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무슨 영문인지 영천시가 직접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고면의 경우는 2019년부터 추진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당시 일부 임원들이 "사업중심지역 주민들은 배제되고 특정인이 거주하는 특정 마을의 일족 및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돼 사업방향이 이권 개입으로 배가 산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영천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넣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임고면 관계자는 "주민들 간의 논란은 있어도 면이 앞장서 이 사업에 관련한 사실은 일체 없다"면서 일축했다.

사업 주체인 (주)포은골 한 관리자도 문화복지센터 부지(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씨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논란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장지수 기자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시 유치를 기원합니다

고 회	문 장	최경용	부 회 장	권오용	이 사	이 광 일	이 사	위 효 선
수석부회장	이희웅	손봉기	"	김정태	"	김정열	"	장 희 경
실무부회장	이희태	이희웅	전무이사	이윤미	"	김성호	"	권 윤 속
부 회 장	김영일	김영일	총무이사	정정호	"	원희철	"	이 필 선
"	김대환	김대환	경기이사	심산순	"	김동현	"	유 모 라
"	김대정	김대정	홍보이사	김미봉	"	김병국	"	이 은 나
"	이수만	이수만	이 사	성수원	"	손종배	"	김 혜 진
"	정호찬	정호찬	"	이주현	"	황성민	감 사	김 경 록
				강성룡	"	박건선	"	정 용 근

영 천 시 육 상 경 기 연 맹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화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

영천시, 준공 후 시설물 운영·관리 대책 급히세워야 추진위, "수익사업 전무, 영천시가 직접 관리" 해야 영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줄줄이 방치 중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이관우)는 구립 27일 화북면 오리장림문화강당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권기환 시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 김응태 사업추진위원장 및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화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6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면소재지 거점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주민전체가 이용가능한 시설을 확충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농촌공 영천지사는 지난 2017년 영천시로부터 본 사업을 수탁받아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60억원의 사업비 내 기본설계비 1억3000만원, 세부설계비 3억4800만원이 포함됐다.

주요 시설물은 오리장림문화강당, 오리장림산책로, 별빛놀이쉼터, 마을안길정비, 공동주차장쉼터, 향토문화자원복원, 소재지경관디자인 등 주로 면소재지 체육 및 복지 시설이다.

이 외에도 농촌공 영천지사는 금호읍, 자양면, 신녕면 등 6개 읍·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영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추진 중이다.

농촌공 영천지사는 "이번 준공과 함께 이 달 내 영천시에 사업완료 보고 및 시설물을 넘긴다"는 반면 영천시는 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주



민들에게 운영 및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반면 김응태 사업추진위원장은 준공식 후 새해 2일 본지와 전화에서 "아무리 주민주도형 사업이라도 우리가 시설물을 받아도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또 전기세 및 공과금 예산이 전무해 직접 관리할 수 없다"면서 "영천시가 직접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의 영천지역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시설 운영을 두고 곳곳에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청통면 은해로운 휴양마을은 주민간 운영권 갈등을 빚으면서 시설물이 2년째 방치돼 있다. 또 같은 마을 '행복마을' 시설도 편법운영으로 보조금 횡령 등 논란을 빚고 있으며, 자양면 보현산권역 별내림촌

캠핑장은 영천시의 방만한 관리 탓에 3년째 방치돼 있다.

더군다나 최근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인 '임고문화복지센터' 운영권을 두고 주체들간 법정 다툼으로 논란(본지 12월30일자)중이어서 농촌공 영천지사의 이번 화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역시 준공 후 관리·운영에 관심이 쏠린다.<관련기사 3면> 장지수 기자

고졸청년은 '내일' 찾기 (my job) 경북도, 4일부터 모집

경상북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에 선정돼 「고졸청년 신산업분야 내일 찾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고졸청년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신산업분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구조 전환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 신기술·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졸청년 채용을 활성화해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통한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에게는 인재를 확보를 통한 구인난 해소를 기대한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디지털 기반, 빅데이터, AI등의 신기술과 스마트제조,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등의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미취업 고졸청년(최종학력이 고졸이나 동등학력으로 인정받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기간 2년 참여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도내 정규직으로 취업 또는 창업(3개월 이내)하는 청년에게는 1년간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 정착을 돕는다. 또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미취업 고졸청년 20명 규모(기업당 최대 2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졸청년 채용 시 최대 2년 간 인건비를(월 최대 160만원, 청년 계속 근무 시) 지원받으며, 채용된 청년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받는다. 김효정 기자

(영천)한농연 여수 농촌지도자회와 지역 특산품 교류 자매결연

영천은 샤인머스켓 여수는 돌산 감김치 선물교환

한국농촌지도자영천시연합회(회장 손병진)는 구립 13일부터 이틀간 영천에서 한국농촌지도자여수시연합회(회장 김영일)를 초대해 양 단체 회원 70명이 '영천-여수 농촌지도자회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를 가졌다.

이들 회원들은 이틀간 임고서원과 최무선과학관을 견학하고 와인 제조 체험과 사과 및 미나리 농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부터 영천에서 처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후 격년 상호방문으로 교류행사 및 연찬교육 일환이다.



한편, 영천에서는 샤인머스켓을 선물하고 여수에서는 한국농촌지도자영천시연합회에게 돌산 감김치를 교류품으로 교환했다. 김효정 기자

대구·경북,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독립운동가 올해 72명 서훈 총 2445명으로 늘었다 경북, 전국 유공자 1만7664명의 13.9% 전국 지방 최고

경상북도 독립유공자가 모두 244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독립유공자의 13.9%에 해당한다.

경북도는 2022년 한해 건국훈장 애국장(4명), 건국훈장 애족장(17명), 건국포장(7명), 대통령표창(44명) 등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72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운동가로 추가 지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신규로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를 포함해 현재 경북도 독립



유공자는 모두 2446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의 독립유공자 1만7664명의 13.9%로 경북도가 가장 많이 일제강점기 경북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1930년 4월8일자 중의일보에 따르면 당시 경상북도경찰서에서 대구상보등학교 교직원(원근태) 1명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결사조직이 각 지방 보통학교와 소학교 전체로 널쭉처럼 번져있는 것을 인지해 대구여자고등학교 졸업 이순이를 경남 김해에서 체포하는 등 대구 경북지역 보통학교 및 소학교 결사조직원 김룡갑, 서영달, 김동환, 이순이, 권태림 등 많은 독립운동 결사조직원을 검거했다고 기록했다.<사진>

2017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독립운동기념관(관장 정진영)을 설립한 경북도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471명(20년 137명, 21년 176명, 22년 158명)을 발굴해 233명(20년 63명, 21년 94명, 22년 76명)을 포상신청 하고, 이중 51명(21년 29명, 22년 22명)이 독립유공자로 확정됐다. 김효정 기자

경북 동해안 해양심층수 개발, “경제성 충분” 1일 취수량 1만 톤 이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필요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이 경북 동해안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6일 김 본부장은 포항 동부청사에서 경북도를 비롯해 포항시, 영덕군, 환동해산업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북 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1일 취수량이 1만 톤 이상일 경우 충분한 개발 타당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경북 동해안은 취수 거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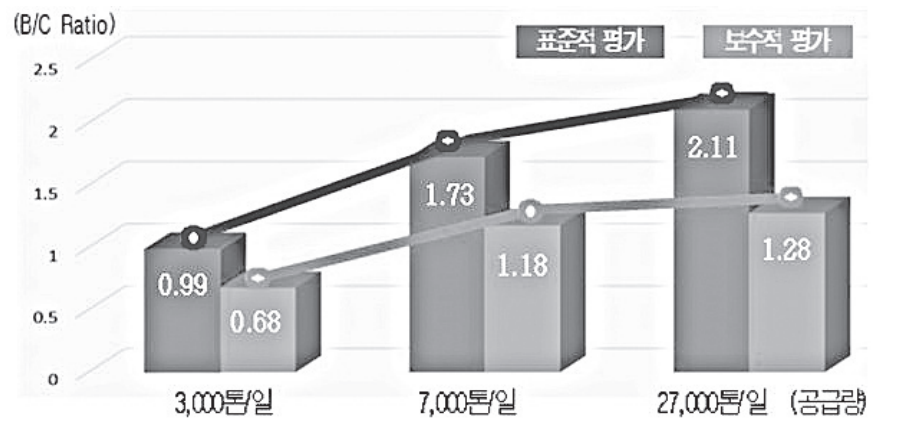
다는 이유로 일반적 인식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는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1일 3만 톤을 취수해 헬스관광용(3,000톤)을 제외한 2.7만톤을 산업화용으로 이용할 경우, 비용편익비(B/C Ratio) 2.11로 ‘경제성 높음’, 보수적으로 잡아도 비용편익비 1.28로 ‘경제성 있음’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해양심층수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배후시장 규모, 교통접근성, 전후방산업 연관효과, 취수기술 발전으로 인한 취수시설 투자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동해안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

고 있어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자원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생수를 비롯해 기능성식품, 의료·건강, 해양요법, 농수산업,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제품개발로 산업화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해양심층수 활용 연어 육상양식을 위한 민자 유치(PPP-PPF)에 나서고 있고, 토야마현 뉴젠마치(富山県 入善町)는 지난 6월 7만㎡(약 2.1만평) 규모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북대서양 연어 육상양식에 대기업 미츠비시상사와 마루하나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해양심층수 다목적·복합이용을 위한 클러스터(특화산업단지) 조성을 권고했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장은 “후계 어업인을 육성해 고품질·고부가가치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스마트양식 청년레지던스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장지수 기자

경북 청도천 하류,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새 100여 마리 나들이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 화양읍 소라리 청도천 하류에 12월 초부터 오방색 수백 마리의 원앙새가 무리지어 날아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새 100여 마리가 청도천 하류에서 가족나들이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면서 이같이 전했다.

원앙은 아시아권 겨울철 텃새다. 암수 한 쌍이 다정하게 다닌다고 하여 예로부터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

수컷은 몸길이 41~45cm, 몸무게 444~550g으로 몸 빛깔이 우아하

다. 무지개 색깔의 멩기와 흰색 눈둘레와 턱에서 목 옆면에 이르는 오렌지색 깃털(수염깃), 붉은 갈색의 윗가슴, 노란 옆구리와 선명한 오렌지색의 부채꼴 날개깃 등을 지녔다.

암컷의 경우 갈색 바탕에 회색 얼룩이 있으며 북부는 백색을 띠고 눈 둘레는 흰색이 뚜렷하다.

원앙은 세계적으로 2만~3만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조류다.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선조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새다. 1984.11.4일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이 같은 겨울철새인 원앙은 최근 매년 11월과 12월에 청도 주변 저수지와 하천 등에 무리지어 수백 마리씩 찾아들어 월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이는 주로 물 곤충, 작은 물고기, 작은 식물의 열매 등이다.

원앙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암수의 깃털이 확연히 달라 (중국)서로 다른 종인 것으로 알고 수컷을 '원' 암컷을 '앙'으로 불렀는데, 같은 조류임을 알고는 원과 앙을 합쳐 '원앙'이라 불린데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장지수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남용 과수한방과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시, 한방·마늘 산업특구 ‘최우수상’

대통령상, 상금 2억원 전국 184개 특구 중 운영성과↑ '최우수특구'

영천시가 구립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에서 영천 한방·마늘 산업지역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상금 2억원을 받았다.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는 지난 2005년 9월 난지형마늘 주산지로 대구·경북에서 마늘 특화도가 가장 높아 마늘산업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이유로 영천시 완산동, 남부동,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임고면 일대 12.90㎢ 면적으로 최초 지정받았다.

이번 교류회서 영천시는 전국 184개 특구 중 그동안 우수한 2021년 운영성과와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천시는 한방 및 마늘 특화사업 추진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0% 증가했고, 농지법·약사법·농수산물법 등에 대한 특례 3개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신제품 6종 개발, 약초도매시장 거래량 262톤 달성 등 성과와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 이날 성과교류회에서 화순 백신산업특구(우수),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우수)는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돼 각각 국무총리상과 상금 1억5000만원씩을 받았다.

김효정 기자

[영천신문 안내]

본지는 애독자 여러분의 정성들인 구독료로 발행됩니다. 지난 연말 청구된 본지 구독료 납부에 협조해주신 독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당초 주간(월4회) 12면 발행에서 당분간 월 2회 16면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보태지도 빠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쓴 소리를 전달하면서 광고와 구독취소,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불만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서 창간 11주년을 건너왔습니다. 앞으로도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않고 오직 독자 여러분의 눈과 귀가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구독료 청구는 신문사 경리가 없는 관계로 독자님들의 구독료 납부상황을 정리하지 못해 2년만에 처음 지난 연말 지로 고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꺼번에 2년 또는 1년의 구독료가 합쳐져 부담되는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매 6개월(3만원) 마다 교박교박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지 구독료는 월 5000원(1년 6만원)입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바른 언론이 될것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다짐하오니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원래의 주간신문으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천신문(인터넷판 영천투데이) 대표 장 지 수

영천시, 道 평생교육시책 최우수

제9회 평생학습 박람회 성공

경북 영천시가 「2022 평생교육추진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지난 10월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평생학습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천시는 제9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주민대상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평생교육 원클릭 웹사이트를 구축한 평가다. 김효정 기자

청송군, 올해 경북도내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우수=영주시·문경시, 장려=포항시·김천시·의성군

올해 경북도내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에서 청송군이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경북도는 구립 30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 청송군, 우수 영주시·문경시, 장려 포항시·김천시·의성군이 각각 선정돼 시상식을 가졌다.

「경상북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는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3개 분야 11개 항목의 지표를 설정해 산림정책추진 실적, 전문임업인 육성, 조림 및 숲가꾸기 실적,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주요 평가지표를 검증해 청송군(최우수), 영주·문경시(우수), 장려기관은 포항·김천시, 의성군이 선정됐다.

각 우수기관에는 상패와 상금 최우수 기관 300만원, 우수 기관 200만원, 장려기관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일선에 서 산림행정을 실현하는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중장기적으로 돈 되는 산으로 가꿔 임업인이 잘사는 산림으로 가꾸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청도] 박물관 8년간 기증된 유물 선별공개

내년 4월 16일까지 무료관람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구립 26일 '기증유물 특별전 - 역사를 잇다, 시대를 읽다' 주제로 박물관 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약 8년(2013년~ 2021년까지) 간 군민들이 기증한 유물을 주제에 따라 선별한 것을 일반에게 일부 공개하게 된 것이다.

전시는 각남 분성 허씨문중의 교지·호패, 반재현 전 국회의원의

선거공보물·의원 월급표·일기장과 매전 북지리의 효자비가 건립된 내력이 담긴 문서, 기증자 할머니의 혼수 물품으로 재봉틀, 반닫이 등의 유물도 있다.

또 이번 특별전에 전시된 유물 기증자 5명에게 감사패 수여도 진행됐다.

구립 26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청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 되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김효정 기자



경북도-대구, 한뿌리상생위원회 첫 총회

상생사업 공동 추진 약속 10개 사업 국비확보 공동 노력

경북도와 대구시는 구립 26일 산격동 대구청사 대강당에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 상호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등 3개 신규 상생사업 추진과 초광역 협력 발전전략으로 10개 사업 국비 확보를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상생위원회의는 코로나 19 여파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등 각종 통합 움직임이 무산된 가운데서 민선8기 첫 상생의 물꼬를 트는 첫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

총회에서는 올해 한 뿌리 상생 과제 추진상황 및 성과 공유, 신규 발굴 상생과제인 >대구권 광

역철도 운영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추진 >웰니스·의료 관광 융합 클러스터 공동 추진을 의결했다.

양 도시 위원회는 대구·경북 전략산업(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첨단반도체)과 신산업(AI·로봇, UAM), 대구경북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생태계 조성사업 등 10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2014년 11월 출범해 대구공항 통합 이전,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팔공산둘레길 조성, 대경혁신인재양성 휴스타 사업, 농산물상생장터 조성 등의 성과로 지금까지 총14회 회의를 개최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도, 다부동전적기념관 내년부터 직영

칠곡군과 MOU, 민간주도 백선엽 장군 동상건립 발대식도尹 대통령, "죽음으로 지킨 자유민주국가 확실히 지키겠다"

경북 칠곡군 6.25격전지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1월1일부터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경북도는 다부동전적기념관을 국가적 현충시설로의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립 21일 칠곡군과 기념관에 대한 이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협약식은 백선엽장군 동상건립 추진위원회의 동상건립 발대식도 병행해 열렸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6.25전쟁 최대 격전지며 최후의 방어선인 칠곡의 전투현장에 존재하는 유일한 전쟁기념관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1981년 건립돼 현재 부지면적 1만8744㎡에 기념관 1동, 구국관 1동, 전적비, 백선엽장군 호국구민비 등의 현충시설로 그동안 한국자유총연맹경북도지부에 위탁운영해 왔다.

도는 6.25전쟁사와 전쟁영웅 선양 연구를 진행하며 민간주도로 내년 상반기 건립 예정인 다부동전투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과 장기적으로 백선엽장군 기념관건립도 지원해 국가적 현충시설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 이날 칠곡군과의 MOU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재욱 칠곡군수, 칠곡출신 도의원, 칠곡문화



원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30일 대선 후보시절 이곳에 들러 방명록에 "죽음으로 지킨 자유 민주 국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장지수 기자

경북 청도, 장애인복지회관 25년만에 새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지역주민과 장애인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완공으로 지역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소통공간이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구립 23일 김하수 청도군수, 김효태 군의회의장, 장애인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행복나눔공작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면서 구립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부 '20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모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약 9개월 만인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군의 장애인복지회관은 1997년 준공 후 25년간 장애인들의 소통 공간으로 이용되어오다 낡고 노후화 되어 그동안 이용에 많은 불편

을 겪어 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다목적 회의실, 상담실, 문화카페, 체력단련실 등을 새롭게 조성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의회 재선의원들, 본회의 운영에 반발 "상임위 필요 없어"

집행부 예산 심의, 재선(집행부 편들기) & 초선(삭감) 대립각 같은 당 재선들의 반란... 향후 모든 의결 본회의장에서 처리 국민의힘 이갑균(재선)... "주변서 저에게 탈당 권유" 발언 왜

이갑균 국민의힘 영천시의회(산 업건설위원장)의 '탈당' 관련 발언 이 연말 지역 정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발언 장소가 공무원이 출석한 상임위 자리여서 발언의 진위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구립 19일 영천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9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변에서 저에게 '탈당'하라는 사람이 있다"며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구립 16일 본회의장 영천시 2023년 예산 수정발의(안) 통과 과정에서 (초선)의장의 본회의장(수정발의) 운영과 관련해 같은 당 재선(3명)의 반발 논란이다.

해당 논란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집행부 내년 본예산이 예결위서 살아나고, 예결위서 살아난 예산이 다시 구립 16일 본회의에서 수정발의(초선)로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같은 당 (의장)초선들에 대한 재선들의 (의장)본회의장 운영 반발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사안이다.

같은 당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구립 16일 본회의 후 19일 공무원이 배석한 제3회 추경 심사 상임위 개의 자리에서 "(본회의의 사대로)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격려와 원망의 전화가 많았다"고 언급하고 "영천시의회가 16일부터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가 죽었는데 오늘(19일) 상임위는 왜 하느냐는 원망을 듣고



이들이 '탈당'을 권유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또 "이 말을 듣고 나니 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 참 부끄럽더라"며 구립 대선 "이게 나라냐며 대통령을 바꿨는데 과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본회의)의회였는지 반문해보고 싶다"면서 "이게 우리 의회냐"며 구립 16일 본회의의 수정발의 통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또 "죽은 상임위원회 왜 가느냐? 책 들고가서 본회의장에 바로하면 되지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본회의 무용론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구립 16일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이영우 의원이 (본회의 수정발의)"보복성에 가까운 것이다. 그 라모 총무위, 예결위 다 필요없다. 12명 의원이 모여서 방망이 두드리고 치아뿌지"라며 의장의 본회의 운영을 비판한 발언과 맥을 같이했다.

이 의원은 또 "과정은 모두 무시하고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좀 떨쳐주면 좋겠다."고 말해 하기태 의장이 특정 목적을 갖고 본회의를 운영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재선인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지적)은 '탈당'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상임위와 예결위까지 다 죽었다

는 뜻으로 (초선)하기태 의장의 본회의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수용 국민의힘 지역 당협 사무국장은 "이 의원의 발언은 공무원이 출석한 상임위 자리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본인의 깊은 속 사정이 있을 듯 합니다"며 이 의원의 '탈당' 발언의 진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하기태(국민의힘) (초선)의장의 본회의장 운영에 반발한 이갑균(국민의힘) (재선)의원의 이 같은 '탈당' 발언이 의장에 대한 압박용인지 아니면 실제 '탈당'을 위한 수순인지가 그 배경이 연말 지역 정가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탈당' 관련 발언을 공무원이 배석한 상임위 회의장을 선택한 배경(이유)이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의회, 2023년도 영천시 예산안 84건, 약 35억 원 삭감

예산편성 취지·목적, 효율성 및 시급성, 타당성 중점 심사 영천시 내년 예산, 전년대비 1533억 원 증액된 1조 2234억 원



안을 발의해 총 규모 80건 65억 원을 삭감하고 조교동 효경복지센터 앞 도로개설공사비 30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전체 삭감 규모는 63건 35억 원이다.

다만 의회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삭감 예산 35억 원(삭감 65억 원-증액 30억 원)은 집행부 예비비 중 당분간 집행할 수 없는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된 후 내년 제1회 추경에서 재 편성될 예정으로 전년대비 1533억 원이 증액된 당초 집행부 편성 예산 1조 2234억 원에는 변화가 없다.

한편, 의회는 이날 예산안 처리



외에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27건은 원안가결 하고 「영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했다.

또 이날 예산안 처리에 앞서 김용문 의원의 '영천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 김선태·박주학 의원이 각각 '2022년도 가축

사육제한구역 조례 재개정'에 대해, '종합스포츠센터 만성적인 운영적 해소방안 및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최기문 영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했다.

영천시의회는 구립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뒤 구립 2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전년

도 마지막 회기(제227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영천시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의결이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이만희 의원, 2023년 영천시 주요 국비확보 현황 보고

"사업비 확보에 간절함 보여준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녕·화산·청통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5년간 총 사업비 360억원(기본조사비 3억원) 확보

"농업용수 확보에 간절함을 보여 주신 영천 신녕·화산·청통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희 의원의 감사인사 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사진) 의원은 3일 지역구인 청도군과 영천시 2023년 예산 확보현황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인사했다.

2023년 영천·청도의 주요 현안 사업 국비 예산이 지난 연말 최종

확정됐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청도 주요 국비 사업으로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2,571억 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3억원(총사업비 360억여 원),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4억 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 및 간선도로 56억 원, ▲영천하이테크파크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 사업 28억 원 등



이 국회 차원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용산 이태원 압사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힘 특위위원 활동으로 숨가쁜 가운데서도 영천·청도의 주요 예산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국비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비 3억 원이 반영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360억여 원을 투입해 신녕·화산·청통면 일원에 양수장, 용수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

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여 영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 조사비 반영으로 이 지역에는 연간 72억 원씩 5년간 향후 순차적으로 사업이 국비로 지속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산 54억 원과 내년 준공 예정인 영천하이테크파크(스타밸리)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진입 및 간선도로 건설사업 56억 원이 확정됐으며, 영천하이테크파크의 ▲용수공급시설 25억 원(증액 10억원), ▲오·폐수 처리시설 3억원(신규) 등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고 보고했다.

앞서 영천 신녕·화산·청통면 주

민 일동은 지난해 11월 이만희 의원을 찾아가 "가뭄에 따른 물 부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주민들로부터 4천여명의 사업 필요성 서명부를 작성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시급성을 호소한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조사비 3억 원을 포함한 5년간 총사업비 360억 원 규모의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신규 사업을 반영시킨 것.

이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예산확보와 관련해 "수년간 영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해오면서 지난해에는 직접 주민건의서(서명부)까지 제출하여 사업 필요성에대한 간절함을 보여주시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희망 도약 한 해 되길... "지방시대 대전환"



이철우 경북도지사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더욱 힘을 발휘하는 지혜와 강인한 땀

박질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처럼, 지금의 난관도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시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들이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거나 희망을 품기도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배울 기회가 넘쳐나서 다시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이 존중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경제발전, 민주화, 새마을운동, 한류 등 성공의 경험과 고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경북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공정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견인해온 경북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동해안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을 이끌어 지방 성공시대,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듭시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나은 경북, 도민 위한 열린 의회" 만들 터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었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경상북도의 역동적인 도약을 위해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치밀한 계획과 세심한 준비로 하루빨리 침체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께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기 위해 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세심히 보살피고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해 힘이 되어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100년 미래 준비 변화와 혁신 전환점



이만희 국회의원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영천시민 그리고 청도군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지만, 그 속에서도 저와 시·군민 여러분에게 있어 뜻깊은 한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지역 발전의 심장이 되어 줄 경마공원의 첫 삽을 떴으며, 또한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 예산 확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등 지역 활력의 혈관과도 같은 주요 SOC 사업들에서도 거듭 희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제4경마장 건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지역의 핵심 현안들 하나하나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맑고 열정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전 세계에 어려움이 잇따라 겹친 글로벌 복합경제위기현실화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 또한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힘을 합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중력이산(衆力移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멈춰있던 경마공원을 달리게 했던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이겨낼 수 있으며 더 슬기로운 도약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묘년, 어둠속에서 분주하게 성장을 위해 노력한 토끼의 힘찬 도약과 같이 영천시민, 청도군민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큰 성취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함께 위대한 영천 만들 터"



최기문 영천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검은 토끼 해에 시민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시

고 뜻하신 일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영천의 지도를 바꿔가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영천의 미래 백년대계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사업이 지난 10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영천에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으며, 영천 경마공원이 유치 13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또한, 경북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총 6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청년유입과 지방소멸에도 적극 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또한 인구유입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돌파구로 삼아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에도 '시민이 행복한, 더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영천시의 신년화두를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인 "적토성산(積土成山)"으로 정했습니다.

적토성산의 자세로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들의 일상에서부터 미래 백년대계까지 두루 챙겨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미래 성장도시, 영천'을 향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혼자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는 말처럼 시민과 함께 위대한 영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초심 잃지 않는 진정한 시민 봉사자 될 터"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담은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영천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어느덧 180여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2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으로 활

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영천시의회는 새해에도 집행기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되,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통해 시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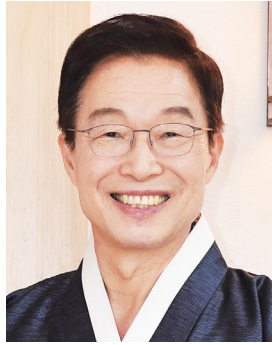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항상 주민과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시책에 반영시키는 등 시민과 동행하는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해 의회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영천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드리며, 지난 6.1 지방선거 때 가슴에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 미래희망 키워나가는 주인공 만들 터”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이 저물고, 희망찬 토끼의 해!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넘어 경북교육에 애정을 갖고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우리 모두 다함께 온전한 교육회복,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란 비전으로 교육결손 회복, 취약계층 맞춤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3개 분야 86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시간을 이겨낸 학생,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 사랑과 열정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과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은 긴 코로나19로 위축된 교육 활동을 온전히 회복하고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 정책을 펼쳐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삶과 연계하여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지원을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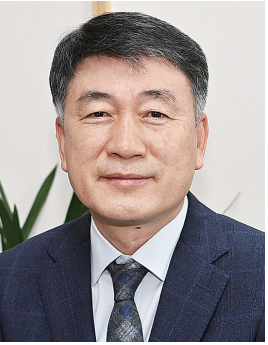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며 그 희망을 키워가는 일이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습경험을 통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2023년 경북교육의 슬로건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삶의 힘을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육, 미래교육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만여 교육가족은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넘어 삶이 아름답고 희망 주는 영천교육”



주원영 영천교육청 교육장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위드코로나를 거쳐 이제는 엔데믹에 가까워지고 있기에 새해에는 온전한 회복과 행복한 일상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올 한 해 동안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과,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견뎌내 주신 우리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님, 교직원, 지역민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우리 영천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우선 곳곳에 흩어져 있는 4개의 센터(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발명교육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한 (가칭)영천학생통합지원센터 신축이 확정되어 향후 학생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022 교육지원청 역할재구조화 시범청으로 지정되어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연계 맞춤형 체험학습 ‘별따라길따라 영천나들이’, ‘호국충절 내고장 탐방 프로그램’ 및 위드코로나에 맞춘 ‘찾아가는 최무선 과학꿈잔치’ 개최,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메타버스 연수’ 운영, ‘2022 학부모 화합 한마당’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영천교육 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교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천교육지원청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자세,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교육가족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영천교육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슴에 품은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린군수실, 소통행정, 신뢰받는 청도 만들 터”



김하수 청도군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일상, 혁신과 도약의 행복도시 청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도군 600여 공직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눔과 포용, 상생과 성장, 참여와 공감을 통한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뜻을 모아 지금의 작은 변화가 큰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군정 추진에 땀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2023년은 ▲혁신하는 친환경 미래농업 육성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 육성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선진복지 실현 ▲지방소멸에 대응한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상생과 협력의 신성장 혁신경제 구현 ▲군민이 행복한 공감행정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전략을 통해 행복 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확대, ▲농산물 안전 분석실 건립,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 활성화 등 가공·유통 환경을 고도화하여 친환경 미래농업 육성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청도는 자랑스런 새마을 중심도시입니다. 새마을 운동 정신을 한국인의 정신으로 우뚝 세워 청도의 자존을 재정립하여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청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도의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청도반시 비상품 자원화센터 건립,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협약사업 추진으로 살고싶은 청도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여민가의(與民可矣) 뜻을 받들어 여러분 가까이서 늘 함께해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미래 비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저와 600여 공직자가 함께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 행복을 다지는 각오에 5만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면 위기극복 해답 보여”

정서진 영천상공회의소회장



계묘년(癸卯年), 희망찬 새해 아침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되돌아

보면 우리가 늘 순탄대로만 걸어온 것만은 아니지만 그 어느 해 보다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좀 안정되어 소비가 늘어나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주름살이 좀 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청년 취업문제도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지하철 연장, 군부대 유치, 경북형 일자리 모델 구축, 산단 대개조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수축사회,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없기에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최대 경제단체로서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사업도 유관기관과 협력,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회원 기업 간 교류와 소통을 늘리고 지역민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면 위기극복 해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다시 뛰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사정, 각계 이해관계자 머리 맞대 대화해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노동자, 기업인,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에는 거센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 노동개혁입니다. 무너졌던 공권력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현장에서 살아났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던 경찰이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막고 운송차량을 보호해서 멈췄던 물류를 뚫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입니다. 노동조합이 산업현장에서 민주주의 학교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플랫폼 노동 등 미조직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을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노사가 모두 행복한 노동개혁의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도-영천시 숙원, 대구도시철도1호선(하양~영천 금호) 연장사업 순항

구랍 27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최종 선정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후 사업 진행 탄력 2024년 예타통과, 2026년 착공, 30년 개통 목표 대구~경산~영천 광역권 활성화 및 경제 도약 기대

경북도와 영천시의 숙원인 대구 도시철도1호선(하양~영천 금호)연장 사업이 지난해 10월 국토부 투자심사 심의위 통과 2달 만에 이번에는 최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순탄한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구랍 27일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올 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 금호읍연장사업은 총사업비 2052억원을 투입해 하양에서~영천경마공원이 조성되는 금호읍까지 5.0km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화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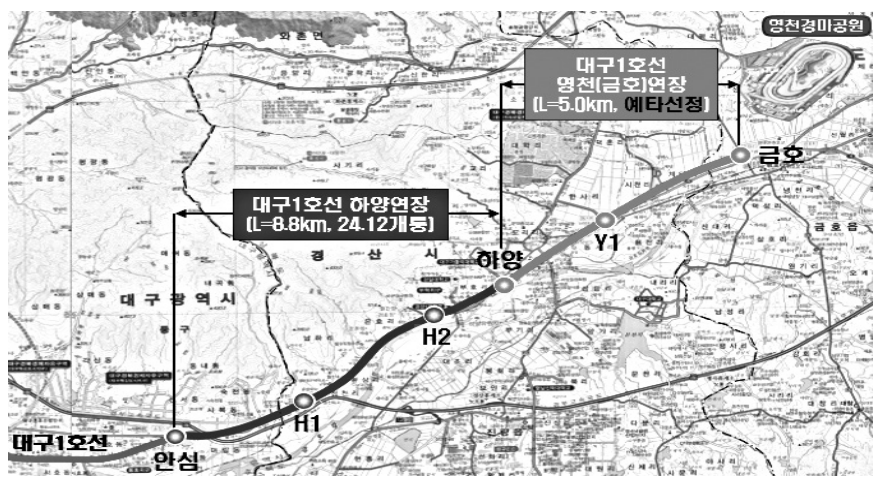
하지만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광역교통 비전발표에서 대

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구간 연장이 제외돼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경제성 비율(B/C)이 낮은 이유에서였다.

당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프로젝트는 ▲경산시 하양역~영천시 영천역까지 총 길이 13km에 정거장 3개소(금호, 대구대, 영천)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3,640억원, 도비 780억원, 시비 780억원, 도합 5,200억원의 무리한 사업계획이었다.

이를 정치권과 경북도, 영천시 등은 다시 사업구간을 하양~금호읍까지 5.0km 구간으로 축소해 경제성 비율을 높이고 2019년 정부 대규모 사업 예타 기준 변경과 함께 5% 가산점이 부여되는 지방 균형발전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사업이 이번 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되기까지 순탄한 진행을 보인것은 지난해 이철우 경북 도지사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 반영 최종 확정 이 후부터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구도시철도1호선(하양~영천 금호)을 포함해 경북지역 철도 지형을 확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하양~영천(금호읍) 5km 지상철 2052억 투입과 대구대·경마공원역 신설, ▲달빛내륙철도 총연장 198.8km 4조5158억원 투입, ▲김천~구미 광역철도, ▲문경~김천 내륙철도, ▲점촌영주선(전철화), ▲대구광주선(달빛내륙철도) 등 총 6개 사업을 대거 반영시켰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이끌어냈다. 경

북 백년대계 철도망 구축사업에 탄력을 받은 단초다.

이로인해 대구도시철도1호선(하양~영천 금호) 연장사업은 지난해 7월 고시된'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광역철도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예타 대상 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서 경북도는 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이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에 걸친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작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에 2022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건의했다.

이에 작년 10월말 국토교통부 투

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정식 신청된 지 2달 만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또 이철우 도지사는 이만희 국회의원, 윤두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적극 협력해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예비타당성조사조기 시행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득해 왔다.

이번 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구 이만희 국회의원은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사업의 필요성을 기재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밝히고"2024년 상반기에 반드시 예타를 통과시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 사업을 2024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5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 2026년에 공사착공, 2030년 개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 (주)한중엔시에스, '2022년 경북 투자유치대상' 기업부문 우수상

기업부문 대상-포항 (주)에코프로머티리얼즈(김수연)

자치단체부문 대상-포항시와 구미시

공무원부문 대상-이화형(포항시 행정8급), 김여진(경주시 행정7급)

경북 영천시 영천산단 (주)한중엔시에스(대표 김환식)가 경북도 주관 「2022년 경북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한중엔시에스는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4월에는 영천시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모듈 생산을 위한 증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전기차 부품과 에너지 저장장치(ESS)분야에 신규투자를 추진하고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경북 투자유치대상은 경북도내에서 수입 의존 부품 등의 국산화로 국내 산업 역량을 끌어올린 기업과 경북에 투자 또는 투자지원으로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치단체 및 개인에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는 투자기업 부문에서 포항 (주)에코프로머티리얼즈(대표 김

수연)과 시군단체로는 포항시와 구미시 그리고 공무원부문에서는 이화형(포항시 행정 8급)씨와 김여진(경주시 행정 7급) 각각 대상을 받는 등 모두 20명에게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기업체에는 트로피와 감사패, 또 자치단체에는 표창패와 각 200만원의 시상금, 공무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 각 50만원이 주어진다.

특히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력을 바탕으로 독자적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 올해 4050억원을 투자하고 20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힘을 실어준 활약이 높게 평가받았다. 장지수 기자



구랍 26일 경북도청 다목적실에서 개최한 2022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오른쪽 끝=기업부문 우수상, (주)한중이엔에스 김환중 대표) <사진=경북도 제공>

(국립)영천호국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합동 안장식... 마지막 예우

구랍 14일 대구·경북 출신 무연고 국가유공자 3위 안장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이상순)이 무연고 국가유공자 안장식을 거행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있다.

구랍 14일 국립영천호국원에 따르면 이날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지자체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됐던 6.25참전 국가유공자 육군중사 故 박정현 님 등 3

위에 대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호국원 현충관 강당에서 대구지방보훈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합동안장식은 유족을 대신해 민·관·군을 대표하여 영천시재향군인회 여성회원, 보훈청 및 호국원 직원, 육군제50보병사단 제122여단 장병, 육군3사관학교 군악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예우를 다해 엄숙하게 거행됐다고 호국원이 밝혔다.

특히 안장 의례식은 국민의례, 영현에 대한 경례, 헌화 및 분향, 추모헌시 낭독, 묵념, 영현봉송 순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경건하게 진행해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다했다는 것.

이날 안치된 故 박정현 님 등 3위를 포함해 국립영천호국원에 지금까지 안치된 무연고 국가유공자는 모두 192위다.

한편, 국립영천호국원 직원들은 매월 초 가족을 대신하여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잊혀지지 않도록 정기적 참배와 조화 교체 등 국가유

공자 명예 선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범어로제피부과 김주용 원장, 1호 고향사랑 고액기부자 등록

대구 수성구에서 범어로제피부과를 운영하고있는 김주용 원장이 영천시에 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첫해 1호 고액기부자로 등록했다고 시가 4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개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영천시는 모금된 기부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치하고 안정적인 기금 조성 기반을 마련한 후 지역의 핵심사업 등과 연계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교통새마을금고, 새해도 사랑의 줌도리운동 계속

교통새마을금고(이사장 모석종)는 'MG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백미 20kg 46포(253만원상당)를 서부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사진)

줌도리는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 쌀을 조금씩 덜어 모아 뒀다가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거나 남을 돕는데 사용했던 단지를 뜻하는 옛 풍습이다.

줌도리 운동은 새마을금고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으로 IMF 당시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어 한 부모가정,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있는 나눔 실천운동이다.

모석종 이사장은 "줌도리의 온기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올해 영천시정 베스트 3... 영천경마공원 착공 은해사 관람료 무료 시행, 출산양육장려금

영천시는 구립 7일부터 1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2022 영천시정 베스트 3'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을 위해 축약된 10개 사업은 △영천경마공원 유치 13년 만에 착공 △경북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631억원 확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확정 △은해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시행 △전국 최초, 경로당 불박이 소파 설치 △출산양육장려금 확대 △한방마늘산업특구 전국 최우수 특구 선정으로 대통령상 수상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조성 공모 선정 △동서남북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전국 평가 2위 등이다.

김효정 기자

계묘년 새해도 지역 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새해를 맞아 (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최기문)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영천시는 △임옥이 200만원 △정각초등학교 총동창회 100만원 △남티를 사과농장 200만원 △지윤희 100만원 △대한수업사회 영천시분회 300만원 △재대구영천향우회에서 500만원이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각각의 사연은 다르나 기탁자들은 지역 내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탁의 취지를 전했다.

김효정 기자



[대창면] 채약산 해맞이... 발전 기원·떡국 나눔 행사

영천시 대창면(면장 박용달)은 이달 1일 대창2리 부녀회(회장 박옥순) 주관으로 오길리 소재 채약산 정상에서 대창면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 및 떡국 나눔 등으로 새해 해맞이 행사를 했다.

대창면 각 기관·단체장 및 이장협의회 회원 등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대창2리 부녀회에서 준비한 떡국과 대창면 경제인연합회(회장 정돈기)에서 준비한 토끼 저금통을 참석자에게 나누고 덕담 시간을 가졌다.

김효정 기자



[영남대 영천병원]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7천 장 기탁

영남대학교 영천병원(병원장 손재호)은 구립 29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7천장을 서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손재호 병원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탁 물품을 준비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정의태권도, 라면 40상자 기부

정의태권도(관장 김순돈)은 지난 3일 관원생과 함께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라면 40상자를 기부했다.

정의태권도 김순돈 관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한 행복을 드리고자 물품을 기부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동참하는 정의태권도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청년센터] 진행 프로그램 성과 공유... 청년 참여

영천청년센터(센터장 강구민)는 구립 28일 프로그램별 참여자 활동 성과 공유 및 청년 참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영천청년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는 프로그램 참여 청년 40여명이 청년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과 소통 교류회, 2023년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또 별별스쿨(청년강사, 대화모임, 청년 실험실), 소셜라이징(청년창업가 제품 나눔 봉사), 듀얼라이프(영천 체험해 보기) 등의 프로그램 성과 발표 및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효정 기자



[화산면 이장협의회] 가래실 마을 문화 탐방... 직접 체험

영천시 화산면(면장 김동현)은 구립 30일 마을 이장과 면 직원이 참석해 면내 가래실 가래실 마을 문화 탐방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단체와 주민들과 화합해 '행복 화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이장협의회원과 면 직원이 가래실 별빛마을 썰매장 체험과 연날리기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구 늘리기 캠페인도 진행됐다.

김효정 기자



[자양면] 충효·도일리 130세대... 수도물 공급

영천시는 자양면 충효·도일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21일 충효2리 마을회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수량 부족 및 수질 악화로 인해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송·배수관로 10.6km, 급수관로 2.6km, 가압장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됐다. 또 자양면 충효·도일리 130여 세대에 영천댐의 원수를 이용한 영천통합정수장의 수도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게 됐다.

김효정 기자

임종택의 『숲과 人間』

② 영천답다!, 농촌답다!... 들꽃 보는 것 공짜 아냐



임종택

◆영천다움과 농촌다움이란

‘OO답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더하다. 라는 뜻이다. 영천답다는 영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리·지형의 자연·사회·문화적 존재와 그 진행 과정에서 형성된 다른 지방과의 차별화된 고유의 특성을 일컫는다. 농촌답다도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짚어볼수 있겠다.

국가운영 차원에서 다움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농촌다움을 농촌어메니티라고 표현한다. 여기에는 답다라는 형용사에 포함하는 구체적 내용을 자원이라는 말로 정의한다. 즉 농촌답다는 농촌어메니티자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농촌다움의 자원은 농촌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농촌다움이 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이다. 즉,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 고건축물, 농촌경관, 농촌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 농촌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의미한다.

◆자연의 가치와 정체성, 농촌이 가진 본질

여기서 가치와 정체성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일까. 물론 그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농촌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사유재산이자 하나의 물적 경관을 여행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공유재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다움의 공유재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익이나 댓가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불편과 성가심을 끊임없이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경관, 예를 들면 꽃을 이용한 각종 축제나 이름난 유실수 농장, 그리고 정원과 식물원 등은 누구든지 이용자는 이용과 유희의 댓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경에서 말하는 차경(借景)으로 제공 되어지는 농촌의 공유적 경관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은 물론 소위 무임승차를 당연시 하는 이중적 심리가 깔려있다. 농업의 가치는 연간 3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 모두를 합한 가치다. 그만큼 농업이 유무형의 사유재산이자 공유자산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반증이다.

◆내 고향 영천의 자연과 농촌 경관

정남식 목포대 교수는 들꽃을 보는 것은 공짜인가? 라고 묻는다. 돌이켜보면 내 고향 영천의 지난날의 자연경

자연의 가치와 정체성... 농촌이 가진 본질 농촌다움 위한 인간의 균형적 사고와 지혜 필요

관과 지금의 경관을 비교해 보더라도 여행객이나 상업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자에 의해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무자비한 파괴의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할 예정이다.

농촌경관의 구체적 요소로 자연적 자원에는 물, 지형, 식물, 동물자원 등이 있고, 사회적 자원에는 시설, 공동체 활동, 특산자원 등이 있으며 문화적 자원에는 전통과 경관자원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농촌의 공익적 구성 요소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농촌다움 100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다섯 가지는 농촌생산경관, 농촌자연경관(하천, 해안), 농촌자연경관(산림), 주거지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이다. 여기에 영천의 경우 두 군데가 선정 소개되어 있다. 선정된 경관은 농촌자연경관(산림)으로 청동면 은해사와 화북면의 보현산 천문대다. 농촌자연경관(산림)은 농촌지역에 인공적인 요소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자연



농촌다움으로 선정된 은해사 일주문 전경



화전민들이 일구어 놓은 화산마을

적인 요소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농촌자연경관요소 중 산림의 경관 요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관이 산림경관인데 산림경관은 농촌 주변의 산림지역의 다양한 경관자원 뿐만 아니라, 농촌 주변의 오래된 수목이나 정자목, 폭포, 계절적 경관 등 다양한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농업 농촌에 대한 구속적 개별 법률은 많으나 농촌다움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농촌다움이 농촌의 유·무형적 가치와 중요성을 나타내는 관념적 표현으로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자원의 구체적 범주에는 논 밭 과수원 산림경관 마을과 마을경관 등을 아우르는데 이것은 일본이 사토야마(里山)숲을 정의할 때 숲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 밭 과수원 초원 취락지 등을 총칭해서 부르는 이름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의 마을숲을 사토야마식 경관(Satoyama-like landscape)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내 고향, 일본 나고야 사례 안 돼야

이와 같은 주장은 2010년 일본의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인 생물자원 이용을 주제로 이와 같은 사토야마숲이라는 의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일본식 사토야마숲이 전세계 마을숲의 원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농촌다움이나 마을 혹은 시골이라는 말을 일본이 사토야마숲이라는 공인된 의제를 이용해 우리의 고유한 농촌다움이나 마을이 또다시 능욕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우리의 단기적이고 복원사업에만 치우쳐온 마을정체성 보존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는 있다. 농촌다움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 영천다움을 지키는 일이다. 자원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비의 대상이 되지만 경관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영구히 보존하고 가꾸고 그 고유의 가치를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2015년 유엔총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개 항목을 제시했다.

◆농촌다움 위해 무엇이 먼저일까?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물다양성 감소 저지 등 다양한 목표를 담고 있는데 우리의 농촌다움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먼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강동진의 '지속 가능한 전통 마을의 유지와 관리 방법론의 개발'이라는 연구 결과를 참고로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수 있는데 그것은 전통마을을 정주환경으로 인식하고 통합적 유지관리를 한다는 점과, 중·장기적 함의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과 노력의 공동배분 등이 주민 자치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우리의 수직적 하향식 관리 인식과는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촌다움을 지키기 위해 발전과 성장 그리고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의 보존 사이에 우리의 균형적 사고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신녕면 차산리 마을 안길의 가지런한 돌담모습



청동면 은해사 일주문 입구 소나무숲길

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반영

총사업비 300억원,
기본조사비 3억 원 확보
신녕·화산·청통면
안정적 용수 공급 기대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원, 사업기간 5년(2023~2027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

지구」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원, 사업기간 5년(2023~2027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화성리·신덕리, 화산면 대안리·용평리·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7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본사업이 착공되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녕면 등 지역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천의 주력 품목인 마늘의 경우 벼 못지않게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최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4000여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이만희 의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영천 영화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해오신 사업임을 잘 알기에 사업 반영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면서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 신녕·화산·청통 3개 면 농민들의 숙원인 농업 용수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만희(사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2일 2023년도 예산에 '영천 영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

[5분 자유발언]

영천시 청년 일자리정책 방향 바꿔야



권기한 의원

권기한 의원이 "영천시의 청년 일자리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보조금만 쥐어 근속만 유지시키는 공여정책이 아닌

꿈과 청춘을 지원하는 듯한 이름으로 포장됐다"면서 사실상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을 되돌아 오기 힘든 길로 등떠미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쉽게 생각하고 어영부영 도전했다가 시간만 허비하며, 심한 경우 폐업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빚만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영천시에서 고민하는 문화적 인프라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작금 영천시의 청년정책의 시급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영천시가 "진정으로 청년을 위하고 타지역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과 기업들 유치로 청년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보기에 '먹을거리가 있는 도시, 꿈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근본적 정책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3년 영천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느꼈다"며 "영천시가 청년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구립 22일 영천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의 청년 지원사업들이 정말 청년들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인지 의문이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영천시가 고령인구 비율이 29%(전국평균 17.9%)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늦었지만 영천시가 다양한 청년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청년일자리 가운데 청년창업 지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름 뿐"이라며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청년창업 지원이 대부분 "청년들의

영천시 공공자전거 '별타고' 사업 개선 필요



박주학 의원

박주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영천시의 공공자전거 '별타고'사업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사업 자체를 영천시가 직영으로 전면 무료화 할 것과 아니면 아예 사업 폐지를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영천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자리에서 "민간업체(경산)에 맡긴 영천시의 '별타고'사업이 실효성이 부족"한대도 영천시가 "매년 시민 혈세 3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이 영천시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1일 이용권과 30일권, 1년권 총 판매량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하루에 약 100장의 별타고 이용권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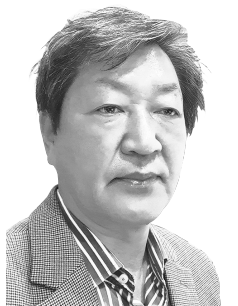
이는 하루 100장의 구매 이용자들이 매일 '별타고'사업 자전거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용객은 겨우 100명에 불과해 이들을 위해 매년 3억원의 혈세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라는 좋은 취지라도 실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거듭 사업 재고를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이 영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3년6개월 동안 사업매출 1800만원은 1년 평균 514만원 정도에 불과해 이같은 실적을 최고치로 잡아도 영천시민 100명을 위한 연 3억원의 예산 투입은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인근 경산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경산시는 영천시보다 3배 가까운 27만 인구에 면적도 영천의 절반이라 공공자전거 사업을하기에 좋은 환경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3년 만에 철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박 의원은 영천시가 차라리 '별타고' 사업을 시 직영으로 무료 전환해 수요가 많은 특정구간의 사업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전면 철수까지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기자수첩



장지수 기자

은 당(국민의힘) 재선들과 조선(의장)간 갈등이 식지 않을 전망이다.

또 본회의 진행방식을 놓고 의장에 대한 3명 재선들의 집단 반발은 역력한 집행부 편들기로 비춰져 의원의 고유 역할인 집행부 견제가 무엇인지를 두고두고 곱씹어 볼 대목이다.

더군다나 절차와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본회의장 수정발의를 놓고 쏟아진 A 의원의 오판도 많은 의장 공격성 발언과 부적절한 막말에도 문제 제기는 커녕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은 적잖은 논란거리로 남았다.<2면>

본회의장 재선들의 항의가 조선에게서 예우를 받지 못해 본회의장을 이용한 억지 양갈음 화풀이로 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같은 당 의원들끼리 불쌍 사나운 의원의 민낯을 생방송으로 고스란히 드러내 시민들의 불만 소리도 높다.

더군다나 예산심사 후 뒷말이 무성하다. "같은 당 의원들끼리 갈등을 겪으면서 의장과 조선들에 반발한 재선 3명은 앞으로 당 행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는 푸념이 여

기저기서 들려온다. 재선들이 얼마나 못났으면...아니면 조선 의장이 극도로 무능했는지...그것도 아니면 자신들에게 공천 준 국회의원이 얼마나 못마땅하면 관전자들 왈 "저것들 같은 당 맞아?"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을까?

탈당 소리로 곱게 들리지 않는다. 같은 당 조선들에 반발해 재선들이 탈당을 입에 올렸다면 못나도 한참 못난 행동이다. 재선 예우를 받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그것도 당에 반발해 무소속을 지향한다는 협박성 발언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면 이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 아니다.

한 재선 의원은 자신의 입이 아닌 남의 입을 빌려 "주변에서 저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것도 당 의원들이나 또는 자신을 공천 준 국회의원도 아닌 공무원이 배석한 공식 상임위 자리에서라면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집을 불사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차라리 직설적 표현이라면 박수라도 받을 것을 말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

체장 개인의 불협에 온 시민이 5년간을 갈등으로 견뎌왔다.

그런데 지난 본회의장 논란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의원들끼리 불협을 유발하면서 또 하나의 니편 니편 갈등 정치국면을 생산해 내면 어느 쪽이든 환영받기는 힘들 것이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완장찬 권력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럴수는 없는 일이다. 모두 자신들이 최고라는 생각. 그래서 시의원을 그것도 조선들이 재선을 이렇게 푸대접하느냐가 이번 본회의장 논란의 주범으로 비춰져서야 시민들을 불 낮이 있겠는가!

뒤에서 탈당이니 비협조니 아니면 도의원 자리에 도전하느니 등 무성할 술자리 뒷말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일찌감치 각자 갈 길 가는 것이 그나마 시민들의 갈등이라도 최소화 하는게 아닐지 곱곰히 생각해 볼 대목이다.

가뜩이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갈등을 겪으면서 시민들까지 니편니편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앞이 아닌 뒷말은 시민들 피로도만 높이기 때문이다.

같은 당 의원 맞아? 차라리 각자 갈 길 가게

민선8기 최기문 영천시장 새해 첫 예산안 처리를 두고 영천시의회가 재선들의 집행부 편들기와 본회의장 막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023년도 영천시 예산이 구립 16일 가깝스로 처리됐다. 한 푼이라도 더 통과시키려는 집행부와 반대로 의원 기본 의무인 집행부 견제 역할 사이에서 전례 없는 총 84건 35억원의 예산 삭감 결과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간 그리고 같

[퇴임] 경북 영천시 정해동 화남면장 32년 공직 마무리 고향(화남)서 정년퇴임



경북 영천시 정해동 화남면장이 구립 23일 32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고향인 화남면에서 동료직원 및 지역 기관단체장, 선·후배 및 시·도의원 등 100여명의 축하속에 면사무소 2층에서 아름다운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정 면장은 29세의 나이에 1991.7.1일 지방별정직 7급(사회복지전담 공채 1기)으로 첫 공직생활에 입문해 슬하에 1남을 두고 조수민 여사의 내조로 아름다운 32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2000년 영천시에 사회복지직이 신설되면서 자신의 전공 사회복지분야 전문인다운 열정으로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발휘해 1993년 경북도지사 및 영천시장상을 시작으로 1999년과 2006년, 그리고 2014년 내리 3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2018년에는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공직 전반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고향인 화남초등학교, 산동중·종합고와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 2007년 6급(사회복지)으로 승진하면서 각 읍·면·동과 본청 주요 요직을 두루거친 정 면장은 2019.8.17 사무관으로 승진, 2020.7.6 고향인 이곳 화남면장으로 부임해 이날 정년퇴임을 맞았다.

이 날 퇴임식에서 눈 시울을 붉힌 정 면장은 "공직 첫 발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2년 세월로 정년을 맞으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공직 생활 중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은 8000여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회관 건립과 복지업무 해소를 위한 가족행복과 신설을 꼽았다.

그는 공직을 떠나면서 퇴임사를 통해 "공직의 꽃인 사무관 승진과 함께 고향에서 면장으로 퇴임할 수 있는것"을 "영광으로 느낀다"며 "그동안 면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퇴임 후에도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며 고개 숙였다.

박영규 영천소방서장 부임



2023년 신입 영천소방서장에 박영규(소방정)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이 부임해 지난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청도 출신인 박 서장은 청도 이서고와 계명대학교를 졸업해 2003년 소방간부후보 공채 12기로 공직에 입문해 성주, 경주, 경산 등 지역 소방서를 두루거쳐 소방본부 청문감찰팀장, 구조구급과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박 서장은 "영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영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사업 평가회

2014년 1호사업부터 9년 동안 모두 28호사업 완료 나눔 실천 자원봉사자들 있어 행복한 마을 만들어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홍우)는 구립 23일 스타컨벤션웨딩에서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사업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회는 그동안 사업 참여 자원봉

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음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다. 스타빌리지사업은 2014년 제1호사업(고경면 부리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사



업(대창면 오길2리)까지 9년 동안 모두 28호사업을 마무리했다.

주 사업내용은 지역 내 마을을 선정해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주거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의료봉사 활동 ▲생활건강 생활 등을 위해 도배 및 장판, 방충망, LED등, 싱크대 교체와 노후가옥 지붕수리, 이·용, 이동세탁 서비스 등 시내생활 접근성 낙후지역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평가 회에서는 특히 심학보(前 경북환경연수원장) 강사를 초빙해 '생태학으로 세상을 읽다'라는 주제의 특강도 실시했다.

구홍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 크리스마스 날 평범한 70년생 천사들의 첫 날개짓 활짝

'에인절스드림후원회', 창립 5년 만에 이웃사랑 실천 첫 콘서트 매년 우수학생 1명씩 선정해 고3 졸업 때까지 학업환경 도와

구립 25일 크리스마스 날 경북 영천에서 '에인절스드림후원회'(회장 조완용)가 임고강변(임고면 덕연리) 한 식당 창고에서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 자선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날 자선 콘서트는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지역 초·중·고 우수 학생 중 매년 1명씩을 선발해 학업을 돕고 있는데 어려운 대상자가 너무 많다"면서 "회원들의 뜻

을 모아 대상자를 늘리고, 본격적인 실천 후원을 하기 위한 첫 행보라는 것"이 김선미 사무국장의 이날 첫 음악콘서트 개최 이유다.

에인절스드림후원회는 5년 전 몇몇 지역 70년생 10여명이 주축이 돼 월 회비 5000원을 내면서 결성돼 지역 A학생(고교생) 1명의 학업을 돕기 시작하면서 올해까지 후원 고교생은 2명으로 늘었다. 현재 회원수는 59명이다.

특히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매년 2월 필요 물품구입 돕기를 시작으로 매월 20만원씩(3년간 720만 원)을 학업기반이 나약한 학생에게 고3 졸업

때까지 지원하고 학원 수강을 돕는 등 학업지도 및 생활상담까지 맡아 부모와 가족 역할도 담당한다.

"회비 5000원(년6만원)으로는 더 이상 후원대상자를 늘일 수 없어 이날 자선콘서트를 시작으로 회원 배가운동과 함께 진정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실천 행보를 넓혀가겠다." 김 사무국장은 "크리스마스 날의 평범한 천사들의 이색 후원 날개 짓이다"며 모임을 홍보했다.

조완용 회장은 "저희 회원들도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편인데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특기나 성격이 우수한 학생이지만 천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보자는 취지로 힘을 합했다"면서 모임의 목적과 취지를 자세히 밝혔다.

또 조 회장은 정치를 배격한 순수 NGO 성격의 모임으로 회비(월5000원)은 행사나 모임 활동경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회비는 100% 학생 후원에만 사용한다"면서 모임의 비정치화를 강조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턱없이 부족한 회비 모금을 위한 회원 배가의 첫 콘서트를 열었다.

장지수 기자



영천 의정동우회, 군시설 유치에 힘 보태

영천시 의정동우회(회장 안종학)가 대구 군시설 영천유치에 힘을 보태기로했다.

동우회는 4일 2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시와 시정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회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 시 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천시의정동우회는 영천시 역대 시·도의

원 31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원로모임으로 시정의 자문역할을 등을 수행하고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2023년에도 시민과 함께 영천의 더 큰 도약과 시민행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며, "의정동우회 회원님들께서도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영천시자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우수기관 선정

영천지역자활센터(센터장 홍순찬)는 지난해 10월 6일 국민연금공단의 방문평가를 결과 전국 (제공기관)385개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영천시자활센터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문평가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여 등 평가를 위한 기관운영, 서비스제공, 사업 관리, 인력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등 총 26개의 지표 평가에서 지역자활센터는 104점 중 97점을 받았다.

홍순찬 센터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효정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금액) 이종계약 후 건물 경매 넘어가 법원으로부터 금액 높은 원 계약배당 받을 수 있나

이종계약 관계없이 세무서 신고 금액 만 배당 가능 보증금과 배당금 차액, 임대인에 별도 청구 해야

문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면서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 금액 이종계약을 작성하였고, 그중 세무서에 신고하여 확정일자 받아 놓은 계약서는 실제보다 금액을 낮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두 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를 기준으로 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

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의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건대 경매나 공매시의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허위의 다운계약으로 실제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보다 적게 표기된 임대차계약서로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허위의 다운계약에 의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실제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과 배당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기업체 비사업용토지 종과세 제도 개정 임박

2022.11 시행 입법 예고... 확정은 아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땀... 보유세 2배 늘 수 있어

비사업용보유토지, 매각 및 용도 변경 검토 해야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여 항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로 활용하지 않거나 유휴토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알아본다.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이 되면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종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비록 비사업용토지가 되어 종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최대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됨에 따라 각종 대출 및 세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를 피해 토지나 상가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동산에 수요

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정부에서는 토지 등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과세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이외에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던 단기양도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단기양도세율이 동일하게 바뀌는 것이다.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적용하는 종과세율도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겠다고 하였다.

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더욱 과세를 강화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비사업용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높아진 세율까지 적용하게 되면, 부담하는 세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확정되기까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법 개정 시행 이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종철 칼럼



우 종 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분단 78년과 왕건의 '포용 리더십'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2월 8일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전제하지 않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53년 뒤 한국의 경제규모가 파키스탄과 필리핀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절벽으로 미래가 암울한 와중에 계묘년(癸卯年) 새해 아침이 밝았다. 2023년 최우선 과제는 수출, 투자, 소비 등 경제의 3대 축이 흔들리는 '삼각파고'와 복합위기를 돌파하는 일이다.

또 다시 '분단 78년'을 맞게 된다. 분단은 한민족의 자유 발전을 크게 억압하고 있으며, 통일은 자유를 바로 세우고 인구절벽 해소와 번영으로 가는 역사의 길이다. 통일포기와 분단고착에 따른 '두 국가체제 인정론'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좌파 일각의 주장은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이다.

통일이 되면 국력이 세계 5강으로 커지고 분단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소모가 없는 강국이 된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위협과 간섭에서 벗어나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길은 '자유 통일'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이다. 중·러·북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반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연함과 안정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강은 양면정책 배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극심한 좌우 이념갈등을 봉합하여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구도를 만들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미사일 발사'와 '드론 침공'과 같은 북한의 망동을 제압해야 한다.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처세 철학으로 제왕에 응립되고 삼한을 재통일한 인물이 고려 태조 왕건(王建, 877~943)이다. 왕건은 877년 예성강을 근거지로 삼은 신흥 호족인 왕룡(王隆)과 부인 한(韓)씨 사이에 맏아들로 태어났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왕룡에게 도선(道詵)대사가 찾아와 삼한을 재통합할 영웅이 탄생할 집터를 가르쳐 주었다는 설화가 전해온다.

신라 말기에는 중앙 귀족들의 왕위 다툼과 '장군', '성주'라 칭하는 80여명의 호족들이 등장하여 왕권이 미치는 범위는 경주 일원에 불과했다. 삼한에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으나, 마침내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로 천하가 삼분되었다.

왕건은 궁예와 견훤에게 부족한 덕을 가진 덕장(德將)으로, 하고조 유방이나 송태조 조광윤보다 월등한 인물이었다.

궁예의 폭정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흥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장군이 시종(侍中) 왕건을 찾아와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했다. 왕건은 부인 류씨의 "인(仁)으로 불인(不仁)을 치는 것"이라는 권유에 설득되었다. 마침내 '역성혁명'으로 궁예를 축출하고 제위에 오른 왕건은 연호를 천수(天授), 국호를 고려(高麗)라 선포했다(918).

왕건은 '호족연합과 혼인동맹'(후비 29명), '진압정책과 회유정책'(호족들에게 후한 폐백을 주며 자신을 낮추는 중幣卑辭), '2(고려+신라)대 1(후백제) 전략', '책략으로 상대방을 굴복(견훤의 귀순, 경순왕의 귀부)시킨 모공(謀攻)' 등을 병행하여 천하를 재통일했다.

왕건이 신라의 '삼국통일(676)' 후 260년 만에 민족을 재통일한 외교전략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부전이승(不戰而勝) 전략'과 신라의 골품제를 뛰어넘는 '개방화 전략'이었다.

고구려 고토회복을 위한 '북진정책'과 발해 유민까지 흡수한 '포용의 리더십'으로 외세의 도움 없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민족사의 새장을 연 왕건 대왕을 경모한다.

[人事] 경상북도

12. 27일자 승진 및 내년 1.1. 일자 전보 및 승진

◆ 3급 승진 : 4명

▷교육파견 김병곤 ▷교육파견 서정찬 ▷교육파견 이장준 ▷교육파견 한승환

◆ 4급 승진 : 22명

▷통합신공향추진단 직무대리 구광모 ▷인재개발원 김경숙 ▷자치행정과 방주은 ▷세정담당관실 심은희 ▷농업정책과 이동욱 ▷예산담당관실 이원준 ▷환경정책과 차순애 ▷사회복지과 최복숙 ▷사회복지과 곽은희 ▷투자유치실 최순규 ▷장애인복지과 이정미 ▷중소벤처기업과 김영섭 ▷소재부품산업과 김제물 ▷친환경농업과 권오현 ▷농업정책과 정주호 ▷축산정책과 복정석 ▷하천과 백원현 ▷농촌활력과 이원호 ▷통합신공향추진단 최병환 ▷보건연구부 감염병조사과장 서상욱 ▷보건연구부 바이러

스분석과장 이창일 ▷기획교육과 고대환

◎[인사이동] 2023.1.1. 부단체장 17명 승진 및 전보 등 24명

◆ 부단체장 : 17명

▷포항부시장 김남일(2급) ▷경주부시장 김성학(3급) ▷김천부시장 홍성구(3급) ▷구미부시장 김호섭(3급) ▷경산부시장 이강학(3급) ▷칠곡부군수 유정근(3급) ▷상주부시장 최우진(4급) ▷문경부시장 백승모(4급) ▷군위부군수 이상현(4급) ▷의성부군수 안국현(4급) ▷영양부군수 박준로(4급) ▷영덕부군수 김동희(4급) ▷청도부군수 장상열(4급) ▷고령부군수 이원철(4급) ▷성주부군수 서한교(4급) ▷예천부군수 이규삼(4급) ▷울진부군수 윤태열(4급)

◆ 승진 : 5명

▷교육파견 김병곤(3급) ▷교육파견 서정찬(3급) ▷교육파견 이장준(3급) ▷교육파견 한승환(3급)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개방형직위승진)

◆ 전보 : 11명

▷재난안전실장 김병성(2급) ▷환경지역본부장 김중권(2급)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3급)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3급)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3급) ▷복지건강국장 김진현(3급) ▷자치행정국장 김중수(3급)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3급) ▷해양수산국장 이경곤(3급) ▷인재개발원장 박후근(3급) ▷정책기획관 강상기(3급)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넓은 실내
깨끗한 주방
아늑한 조경

한그릇의 만족

“단포 축구공원 풍경”

자연과 함께 식사 후 야간 강변 산책도 가능한
아늑한 국밥집

“최고의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천시 고경면 단포 구보길 43-6
(054)333-4710

한그릇의만족 대표 탁기만

